

## 外國商標盜用 집중단속

### 對外通商고려 강력制裁 방침

정부는 工所權 사용질서확립운동의 일환으로 고질적인 외국유명상표盜用행위근절을 위한 집중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국 주요 도시의 시장과 수입품판매상가는 물론 호텔·백화점으로 확산되고 있는 외국 유명상표盜用제품의 거래행위가 88서울을 립찍을 앞두고 한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美·日 등 선진국이 對韓 수입장벽을 높이는 구실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 최근 특허청장 명의의 단속협조공문을 치안당국에 발송했으며 서울시警과 각 경찰서는 상표盜用수사전담반을 편성, 곧 본격적인 범법자단속활동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美國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물질특허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과 함께 自國상표권보호를 우리 정부에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 特許검색 電算化추진

### 데이터通信가입 검토 등 활발

특허행정의 능률화를 위해 電算化작업을 추진중인 特許廳은 지난해까지 工所權출원·통제 등 행정통제 및 文字상표검색작업을 끝내는데 이어 특허 및 실용신안기술검색, 도형상표검색시스템 등 電算化작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特許廳이 절차의 간소화, 사무의 표준화, 사무의 자동화를 겨냥해 추진하고 있는 電算化시스템 개발사업에서는 현재 문서로 보관중인 각

종 工所權관련서적·자료를 점차적으로 마이크로 필름화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特許廳에서는 산업연구원(KIET)과의 특허정보교환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데이터통신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工業所有權 호혜주의 認定

### 저어지國 國民 特許出願時

特許廳은 저어지國 國民이 特許出願時 提出한 호혜증명서에 의거 特許法 第40條規定에 따라 저어지國 國民에 대하여 特許에 관한 權利를 認定(확인일자: 84. 12. 5)키로 했다.

## 物質特許도입 촉구

### 醫藥·化學산업 발전 위해 불가피 주장

전세계 35개기업들의 工業所有權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터패트(Interpat) 대표단은 한국정부에 대해 物質特許의 조기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디이터·라우딘 단장(西獨 베링거인겔하임 특허부장) 등 4명의 인터패트 대표단은 힌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韓國이 물질특허를 도입할 경우 의약 및 화학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본을 보다 쉽게 끌어들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질특허의 조속한 도입을 요망했다.

인터패트 대표단은 또 최근 美의회를 통과한 GSP(一般特惠關稅度) 법안이 그 수혜대상을 해당국내에서의 특허를 위시한 知的所有權보호와 연계시킨 점을 예로 들면서 韓國이 의약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물질특허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極貧者 發明考案 無料受任

— 지난해 12件 처리 —

大韓辨理士會가 지난 1978년부터 實施해 오고 있는 極貧者 發明考案에 대한 無料受任處理件數는 84년도중에 모두 12件을 處理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韓辨理士會는 국민자들로 하여금 발명의욕을 북돋우고 발명장려를 위해 工業所有權에 관한 無料相談業務 및 特許 등의 登録 出願에 대해 無報酬로 支援해오고 있는데 올해는 考案者 박명옥씨의 「경운기 로타리밭의 탈구방지보호판」의 8件이 出願되었으며, 1件이 미출원, 2件이 미결로 남아있다.

## 설탕 2백배 甘味料 개발

— 美·日 이어 세계 3번째 —

설탕의 2백배 甘味度(단맛)를 가진 아스파톡이라는 감미료가 세계 3번째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 2월중순부터 시판된다.

第一製糖(대표 孫永禎) 종합연구소 李在興박사팀이 개발한 이 아스파톡은 두 종류의 天然 아미노酸인 페닐알라닌과 아스파라긴酸을 결합한 아미노산계 감미료로 설탕에 비해 2백배의 단맛을 갖고있어 같은 감미도를 내는데 양으로 환산, 설탕의 2백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고 甘味の 질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美國·日本에 이어 第一製糖이 개발한 이 아스파톡은 미생물에 의한 直接醱酵法으로 생산되는데 다른 방법에 의해 생산되는 것보다 제조원가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농도나 수율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 辨理士試驗 合格者 發表

— 女子 4名 등 84名 合格 —

1984년도 日本 辨理士試驗에서 응모자 3,104名중 84名이 合格했다.

日本辨理士 審査會에 따르면 지난해 合格者는 83년 83名 보다 1名이 많은 숫자인데 이중 특허사무소직원이 33名, 會社員 24名, 무직 20名 순이다. 그리고 이들 合格者 중에는 女子合格者 4名도 들어 있다.

## 中共, 발명자에 보수

— 「特許法실시세칙」규정 —

中共特許局은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이나 기술개발을 한 개인에게 상당액의 보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中國特許法실시세칙」을 최근 발표했다.

日本の 共同통신에 따르면 이 세칙에서는 특허권을 가진 조직(또는 기업)은 이 특허권을 통해 얻은 이윤(납세 이후)의 0.5~2.0%를 매년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권을 가진 조직은 다른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특허에 의한 특수기술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있지만 이때 취득한 사용료(납세 후 금액) 중 5~10%를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불해야한다고 이 세칙에는 규정돼 있다.

그런데 中共은 84년 3월 全人代(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新特許法을 채택하고 84년 11월 「工所權보호에관한 파리조약」 가입을 결정했었다. 이번에 발표된 실시세칙은 전문 10장 96조로 구성됐으며 특허신청과 특허심사 및 비준, 발명자장려 등의 사항을 규정, 特許法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